

 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배포 일시	2021. 7. 19.(월) 총 3매(본문 2, 참고 1)	
담당 부서	혁신행정담당관	담당 자	• 과장 오영록, 사무관 조 술, 주무관 박혜진 • ☎ (044)200-5150, 5155, 5156	
보도 일시		2021년 7월 20일(화) 석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20.(화) 06:00 이후 보도 가능		

해수부, 올해 상반기 선화주 상생 협력 등 적극행정 실현 **-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 선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화주 상생 협력을 통한 수출입 물류 애로해소 지원’ 등 7건을 선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적극행정 성과를 공유하고 적극행정 추진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민과 함께한 해수욕장 방역’, ‘해운산업 재건 가시화 기반 마련’, ‘비대면 방식의 수산물 소비촉진’ 등 3건이 선정된 바 있다.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는 광화문 1번가를 통한 국민참여 투표, 직원 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3건, 장려 3건을 선정하였으며, 대체로 코로나19 등 해양수산 환경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를 이루어낸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 사례로는 ‘선화주 상생 협력으로 수출입 물류 애로 해소 지원’ 사례가 선정되었다. 해상운임 상승으로 수출기업들의 물류 애로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선박 투입, 수출입 물류 종합대응센터 운영 등 다방면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또한, ‘우수’로 선정된 사례 중 하나인 ‘코로나19 위기를 뚫고 K-씨푸드 수출 역대 최고치 달성’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수산식품 수출시장의

회복을 위해 비대면 지원방식으로 신속히 전환하여 온라인 무역거래
알선·수출계약 지원, 소비증가 식품(가정 간편식, e-커머스시장)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 사례이다. 이러한 적극행정을 통해 2020년 수산물수출
11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 다른 ‘우수’ 사례로는 ▲어촌뉴딜300 사업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별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의 실질행위를 높이는 등 조기에 성과를
창출한 ‘어촌뉴딜 300으로 어촌의 새로운 활력을 채우다’, ▲규제완화를
통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 ‘코로나
19 시대 수출 장애물 모두 비켜!’가 선정되었다.

< 2021년도 해양수산부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

구 분	사 례 제 목
최우수	선화주 상생 협력으로 수출입 물류 애로해소 지원
우수	어촌뉴딜 300으로 어촌의 새로운 활력을 채우다.
	코로나19 위기를 뚫고 K-씨푸드 수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다.
	코로나19 시대 수출 장애물 모두 비켜!
장려	사람 중심 ‘안전 대한민국’ 실현, 범부처 「통합공공망 협의회」에서 시작된다!
	환경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개체굴 양식 전환을 통해 어가소득 향상과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해양수산 지역현안 해결사 지중해(地中海) 프로젝트 추진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기여한 직원을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여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성과급 우수
등급, 포상휴가 등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오영록 해양수산부 혁신행정담당관은 “앞으로도 적극행정이 공직
문화로 자리매김하여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부서명	사례명 및 주요내용	비고
해운정책과	선화주 상생 협력으로 수출입 물류 애로해소 지원 선복 부족 및 해상운임 상승으로 수출기업들의 물류 애로가 심화됨에 따라 임시선박 투입(33척), 전용 선적공간 제공(7,101TEU) 및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종합대응센터 운영으로 선복공급 확대 및 해외수출 지원	최우수
어촌어항재생과	어촌뉴딜300으로 어촌의 새로운 활력을 채우다. 어촌뉴딜300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초기 재정집행 부진, 지역주민 갈등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대국민 인식개선 홍보, 타부처(국토부) 협업 사업 발굴, 리빙랩 도입, 체계적인 집행관리 및 현장소통 등 단계별 방안 마련으로 실행률을 제고('19 49.2% → '20 81.6%) 등 조기성과 창출	우수
수출가공진흥과	코로나19 위기를 뚫고 K-씨푸드 수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수산식품 수출시장의 회복 및 수산업계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중심의 무역·소비시장 진출 지원으로 정책을 신속히 전환하고, 추가 예산 확보, 관계기관 협업(농식품부 등)으로 수산가공품 수출 역대 최고치 달성('19 10억불 → '20 11억불)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 검역검사과	코로나19 시대 수출 장애물 모두 비켜 ! 수출기업 위생 점검 시 경미한 지적사항에도 일괄적인 행정처분(생산 중단, 보수, 중단 등)으로 인해 업계의 부담이 가중, 이에 규제 완화를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또는 자체 개선토록 하여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수출지원 및 행정 효율성 향상	
첨단해양 교통관리팀	사람중심 '안전 대한민국' 실현, 범부처 「통합공공망 협의회」에서 시작된다 ! 신속·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해수부 주도*로 재난 대응 통신망을 3개 부처(해수부, 행안부, 국토부)가 공동 이용하여 상호 간 통신망 운영성 확보, 전파 간섭문제 해결 등 국가 재난 통신망의 안정적 운영기반 마련	장려
양식산업과	환경과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개체굴 양식 전환을 지원하여 어가소득 향상과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수하식 굴 양식 시 스티로폼 부표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양식어가 수요와 해역별 특성 등을 반영한 개체굴 양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해양 미세 플라스틱 발생량과 탄소발생량을 감축시키고, 어가 소득증대에 기여(80ha 전환, 약 368억 증가)	
기획재정담당관실	해양수산 지역현안 해결사 “지중해(地中海) 프로젝트” 추진 지역 균형발전 도모 및 국민 생활밀착형 정책 개발 등을 위해 지역 사회와의 소통방식을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전환하고, 기관장이 직접 현장 소통을 통해 지자체와 함께 특화사업 발굴(119개, 8,556억원)	